

농기계 미래생산기술 대전환 선도

익산시, 민·관·연 '맞손' ... 수요변화 대응 지역특화산업 발전 도모

익산시가 국가연구기관 및 K-농기계 대표기업과 협력해 농기계 산업의 미래 생산기술 대전환을 선도한다.

시는 농기계 기업에 미래기술 수요형 부품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간 기술 지원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기계 산업 발전 기반 마련에 나선다

시는 10일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농기계·부품산업의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트랙터·콤바인 등 농업용기계의 국내 선두 기업이며 익산시에 소재한 ㈜TYM(동양물산)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시 농기계 산업 미래 생산기술 전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농기계 산업 분야 미래 기술 수요에 맞춘 연구개발, 중소·중견기업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 기술 지원, 완제품 상용화 지원 및 해외 수출 지원 등에 상호 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농기계 기술 지원 협력체계 구축 지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농기계 기업 기술 수요 조사 및 연구개발 △TYM은 시제품 제작, 실증 테스트, 국·내외 마케팅을 통한 판로개척 등 지역 농기계 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을 공동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관리도 예술섬 조성 관련 양해각서 체결



군산시는 군산수협(조합장 김광철)과 10일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 관련 토지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 공모 추진

군산시 · 군산수협, 사업예정부지 토지사용 양해각서 체결

군산시는 군산수협(조합장 김광철)과 10일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 관련 토지사용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김광철 군산시장, 김광철 군산수협 조합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리도 4층 면담실에서 진행됐다.

시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한 관리도 예술섬 사업유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업예정부지 토지권원 확보가 필요함에 따라 사업예정부지의 74%(약 88만㎡)를 소유하고 있는 군산수협과 토지사용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게 됐다.

양해각서 주요내용은 군산수협은 관리도 내 수협소유부지 34필지(약 88만㎡)가 사업에 포함되는 것에 동의하며, 향후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 이전

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시는 수협 소유부지를 포함한 예술섬 조성사업 공모를 추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김광철 시장은 "시와 군산수협간 토지사용 협약을 통해 토지권원을 확보하여 관리도 예술섬 민간사업자 공모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면서, "향후 공모자집서 등 세부적인 내용이 마련되면 시의회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리도 예술섬 조성사업은 고군산군도에 위치한 관리도 121만㎡ 일원에 대하여 예술을 테마로 하는 예술 관련 시설, 관광시설, 기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시에서 민간사업자를 공모·유치하여 고군산군도 관광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고향사랑 홍보존' 운영

군산시는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시간여행축제 기간동안 백년광장에서 '군산시 고향사랑 홍보존'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군산고향사랑기부제와 함께 박대, 울외장아찌, 통곡물 꾸러미 등 군산의 인기 답례품을 홍보하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새로운 답례품을 발굴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에는 기존 답례품 공급업체 뿐만아니라 흙어, 보리차, 양배추즙 등 다양한 제품군의 업체들이 참여했다.

특히,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내손으로 pick!' 고향사랑기부 답례품 현장투표를 진행해 내년 답례품 모집에 반영될 시민들의 의견을 제안 받았다.

/군산=김판곤 기자

군산시, 초등생 맘껏광장 놀이 한마당 참여자 모집

군산시가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맘껏광장 놀이 한마당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맘껏광장 놀이 한마당은 다양한 놀이활동을 통해 건강한 놀이문화 확산 및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가 마련한 놀이 장소다.

시는 오는 2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종이 플라스틱 등의 재료로 놀이감을 직접 만들어 놀이활동하는 재활용놀이, △타니클링, 풍주 등 세계 놀이, △웃놀이, 딱지놀이 등 전통놀이, △한궁, 플라잉디스크 등 스포츠놀이, △지구환경의 이슈에 대한 이해를 담은 환경놀이, △아동권리광장 역사의 길을 활용한 권리놀이, △놀이감 만들기 체험 등 7개의 놀이 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이다.

맘껏광장 놀이 한마당에 참여를 원하는 초등학생은 오는 13일부터 20일까지 군산시 홈페이지 통합예약시스템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동정책과(☎454-416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김판곤 기자

미륵사지서 한 달간 빛의 향연... 찬사 속 성공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 야간관광의 새 지평 열어... 15만명 방문 백제왕도 명성 이어

2023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가 1400년 전 백제 밤하늘을 꿈꾸게 하는 빛의 향연으로 세계유산 백제왕도 익산의 명성을 알리며 야간관광의 새 지평을 열었다.

시는 지난달 9일부터 이날 9일까지 한 달간 미륵사지 일원에서 진행된 2023 익산 미륵사지 미디어아트 페스타에 15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찾아오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전국 대표 미디어아트로 올해 3회차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용화세계, 백제인 익산'을 주제로 미륵사지가 가진 무형의 콘텐츠를 미디어 디지털 기술로 접목해 세계유산을 새롭게 즐길 수 있게 개최되었다.

미디어 파사드와 융복합 미디어쇼, 드론 라이트 쇼를 결합하여 미륵사지



의 역사적 가치를 융복합 예술로 표현해, 미륵사의 창건 의미, 무왕과 선화공주의 스토리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쉽게 문화유산을 이해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생물테러 대비 초동대응 현장능력 강화

익산시 보건소는 국가위기 상황인 생물테러에 대비해 초동대응 현장능력 강화에 나섰다.

보건소는 전라북도 감염병관리과, 익산 119 화학구조센터, 익산경찰서, 익산소방서 등 유관기관 관계자 및 보건소 직원 50명이 참석하는 '생물테러 대비·대응 모의훈련'을 8일 실시했다.

생물테러란 잠재적으로 사회 붕괴를 의도하고 생물학적 제제를 의도적으로 방출하여 바이러스, 세균, 독소 등을 사용에 살상하거나, 사람 혹은 동식물에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이번 훈련은 생물테러 위기 상황 발생 시 각 유관기관의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 협조를 위해 초동대응기관 간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훈련은 실제 테러 현장에서 동일하게 사용될 개인보호구 착용 및 탈의 방법, 다중 탐지키트 탐지 사용법, 검체 안전 수송 등 일련의 대응 절차에 따른 실습 위주의 훈련 형태로 진행해 숙련도를 향상하고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훈련을 통해 생물테러감염병 초동대응기관 간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됐다"라며 "앞으로 생물테러 의심 사건 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처로 익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2023년 군산짬뽕페스티벌 성황리 개최

미식 여행의 성지로 떠오르는 군산 짬뽕특화거리에서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이틀 동안 2023년 제3회 군산 짬뽕페스티벌이 성황리에 마쳤다.

이날 행사는 짬뽕 특화 거리에서만 즐길 수 있는 흥등 거리 조성으로 시민과 관광객에게 뉴트로 감성의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했다. 이번기간 동안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찾아 전국 짬

뽕 마니아들에게 세계 이색 짬뽕 등 다양한 짬뽕의 맛과 멋, 흥과 힐링 여행을 즐겼다.

짬뽕 쿠킹 클래스 수타면 놀이 체험, 네일아트 및 페이스페인팅 아트체험 등이 축제장을 찾은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체험 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했으며, 개그맨이자 중식당 창업자인 이봉원과 짬뽕의 대가 여운방의 재밌는 입담은 짬뽕 축제에 즐거움까지 선사해 관람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음식특화거리 행사인 만큼 입점업소 9개소의 군산지역 내 짬뽕 맛집업소 5개소가 참여해 더욱 많은 먹거리를 선사,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았다. 또, 각자 자신 있게 음식 합인 이벤트와 업소 내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손님 모시기 앞장서 거리에 활기를 불어 넣었다. /군산=김판곤 기자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